참여라는 씨앗이 안전보건 문화라는 열매로

무림P&P 울산공장 |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

글 이승열 **사진** 강권신

사업장의 안전은 노동자의 참여를 필수로 한다. 그렇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들의 노력은 언제 어디서나 요구된다. 무림P&P 울산공장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컨설팅과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으로 노동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그 변화가 꾸준히 유지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꿔나가고 있다.

사업장 제1호 위험요소, 화학물질

무림P&P는 1974년 설립된 펄프·제지 전문 기업이다. 펄프와 제지 공장을 일관화해 펄프부터 종이 생산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원스톱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최초의 국내 기업이다. 울산과 진주, 대구 등 3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울산공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유일하게 펄프 공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제지와 펄프 공정의 특성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각 공정에 따른 안전운영부의 관심사도 상이하다. 제지 공정의 경우, 펄프 공정에 비해 기계 대신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공정이라 근골격계질환, 협착 등과 같은 안전사고 등이 주요 관심 대상이다. 반면, 펄프 공정은 제지 공정에 비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면밀하게 체크한다. 더욱 안전한 현장을 위해 안전운영부는 공정에 사용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지난해 12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

현장 점검 결과, 중대한 위험으로 파악된 물질은 총 8종으로 파악됐다. 화학물질의 건강 유해성 분석 결과로는 주로 ▲흡입독성 ▲피부접촉독성 ▲눈손상성 등의 물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특별관리물질에 대한 표지가 부족한 점 ▲국소 배기 장치

의 비효율적인 활용 등이 꼽혔다. 안전운영부는 즉각적인 개선과 보완에 나섰다. 엄지원 보건관리자는 컨설팅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참여를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위험성평가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참여 속에 자리 잡는 안전보건 문화

컨설팅이 무림P&P 울산공장의 안전보건 문화 정착의 씨앗이었다면, 그 씨앗을 무럭무럭 키운 것은 ‘안전의 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안전의 날 활동이란 매월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는 수시 위험성평가의 일환이다. 정기 위험성평가 때 발견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발굴하기 위함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원들이 모두 참여해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장장 주재하에 진행됐었지만, 2023년 방식의 혁신을 가져왔다. 그 계기를 안전운영부 임성규 과장이 설명했다.

“정기 위험성평가만 진행하다 보니, 아차사고 같은 돌발적인 상황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체크해 놓아도 다음 정기 위험성평가 때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활동들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후 노동자들의 태도는 능동적으로 변화했다. 이전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직접 요청하고 설명했다면, 요즘은 현장의 안전수칙 및 기준에 대한 문의가 선제적으로 들어오기도 하며, 동료 노동자에게 ‘안전모 착용하자’, ‘벨트 꼭 매라’ 등 안전을 당부한다고 한다.

안전보건관리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 중이지만, 여전히 고민은 있다. 제지와 펄프 공정의 특성 차이가 존재하기에 노동자들의 인식 차이도 발생한다. 본인 공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안전보건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울산공장을 방문하면 2개의 기업을 방문하는 것과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다. 이 사이의 중간값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김선도 부장은 안전보건관리는 언제나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어떤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보완은 꼭 필요한 부분이며, 노동자들의 니즈는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전운영부가 현장 안전을 향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항상 강조하는 이유다.

"특성이 다른 사업장을 같이 관리한다는 애로사항은 중장기적으로 조직 개편이나 전담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를 조율하는 것도 우리의 몫인 만큼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참여의 중요성과 함께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할 것이고요. 안전보건 문화가 노동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꾸준히 고민하겠습니다."

Mini Interview

생명을 지킨다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울산안전운영부 **김선도** 부장

Q. 울산안전운영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경영센터가 탄생했고, 산하에 안전기획부와 3개 공장별 안전운영부가 생겼습니다. 울산안전영부에는 저를 포함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 소방안전 관리, 위험물 관리 등입니다.

Q. 안전보건 부문 다짐과 포부를 들려주세요.

올해 목표는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평가 S등급 달성 ▲협력업체 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 ▲정기 위험성평가와 연계한 안전의 날 활동입니다. 저는 울산안전운영부를 '최강안전운영부'라 부르고 있는데요. 이 별칭에 걸맞게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울산공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